



#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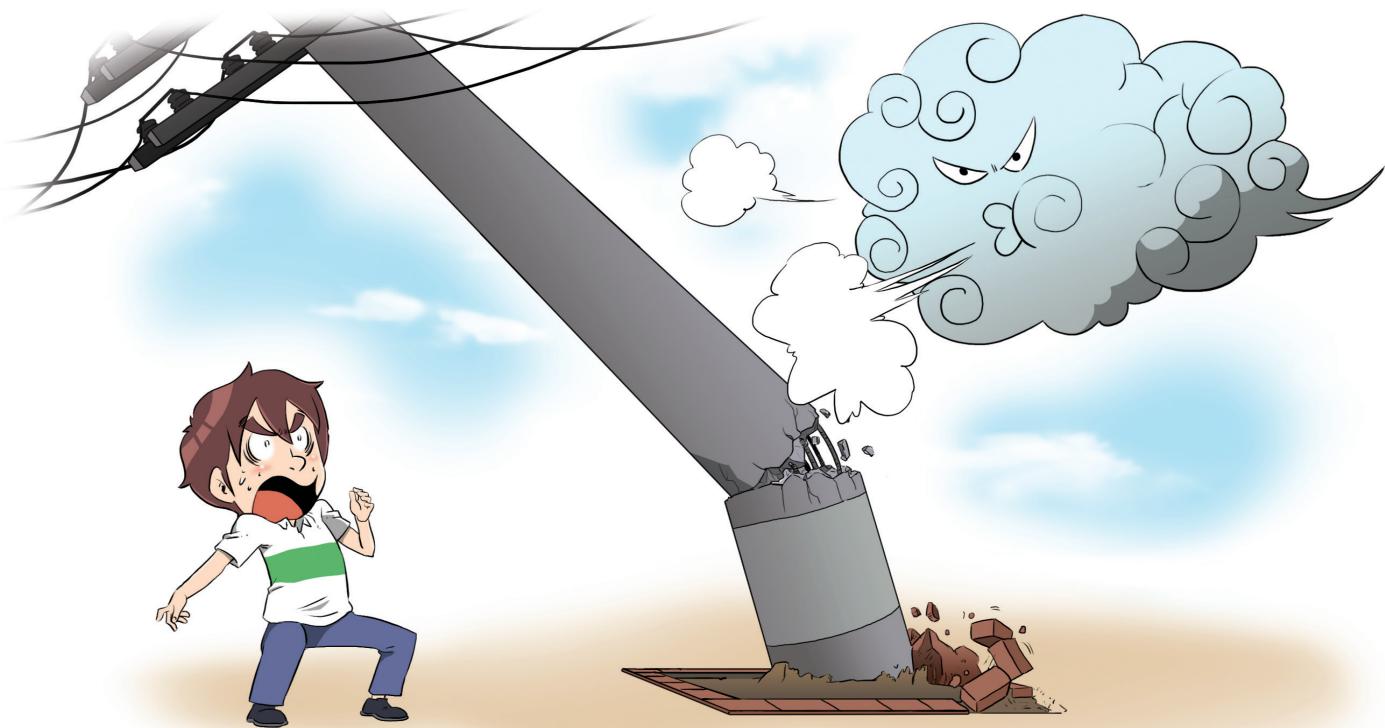


## 강풍이란?

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기상상태를 말한다.

### 강풍관련 기상특보 발효기준

- **강풍주의보** : 육상에서 풍속 14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/s 이상이 예상될 때  
다만, 산지는 풍속 17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/s 이상이 예상될 때
- **강풍경보** : 육상에서 풍속 21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/s 이상이 예상될 때  
다만, 산지는 풍속 24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/s 이상이 예상될 때



## 이것만은 꼭!

- ✓ TV,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한다.
- ✓ 강풍에 의해 설치부재가 파손되어 낙하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.
- ✓ 강풍(폭풍) 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, 현장 안전관계자 의 안내에 따라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하여야 한다.
- ✓ 끊어지거나 늘어진 전선 등은 직접 만지지 말고 관계기관에 신고한다.
- ✓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날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 으로 이동시킨다.



## 안전한 작업방법

### 강풍 주의보 · 경보가 예보된 경우



- TV,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한다.
-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, 천막, 가건물 등은 바람에 설치 부재가 날리지 않도록 보강하여 단단히 묶어둔다.
- 공장, 가건물의 지붕, 안테나 등을 단단히 결속하고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입간판, 화분 등은 실내로 이동시킨다.
- 유리 창문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신문지, 비닐 또는 테이프를 창문에 붙여두고 커튼, 블라인드 등을 친 다음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한다.
- 해안지역에서는 바닷가로 가지 않는다.
- 외부에 있을 때는 신속하게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, 가건물이나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않는다.
- 전주, 송전철탑, 낮은 집이나 위험한 담장, 축대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.
-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, 방음벽 아래로는 대피하지 않는다.

### 강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



- 안전하다는 방송이 있기 전까지는 안전한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.
- 가족, 동료의 건강상태를 살피고, 시설에 피해가 없는지 살펴본다.
- 끊어지거나 늘어진 전선 등은 직접 만지지 말고 관계기관에 신고한다.
- 간판이나, 나뭇가지, 파손된 유리, 전선 등 밖은 위험하므로 가능한 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노약자는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한다.
- 차량운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.

\*자료 출처 : 소방방재청